
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

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오는 것

"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
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"(마 13:24).

천국은 어떤 완제품과 같은 상품으로
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.

천국은 말씀의 씨앗으로 오는 것입니다.
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의
놀라운 독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.

그것은 천국이 사람에게 뿌려졌는데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
계속 발전하여 하나님의 세계에까지 완성되어 갈 수도 있고
도중에 꺾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

천국이 내 마음 속에 시작되었다가 새가 먹어 버린다든지,
바람에 넘어진다든지, 유혹과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도
있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알게 된 천국의 비밀입니다.

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씨앗은
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.

천국은 삼십 배, 육십 배, 혹은 백 배,
즉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확정됩니다.

어느 누구도 이 천국을 다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.
천국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.

- 하용조